



발행일 : 2018년 2월 1일

1_2월호

18년도 뉴스레터_ 하나되는 모트렉스

회사와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줄 'M STORY' 는 모트렉스가 발행하는 전자사보 입니다.

CONTENTS

- 리더에세이
- 詩 와 休
- 사진으로 보는 모트렉스
- 모트렉스 소식
- 릴레이 직원투고
- 모트렉스 용어사전
- 生生 생활정보
- 이달의 문화추천
- 참여광장

MOTREX

COVER STORY



1월 연구소의 M.V.P로 선정된 PM2팀 이영찬 선임연구원입니다. '혼자보다 함께'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동료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8년 1·2월호



모트렉스의 전자사보

발행일 2018년 2월 1일

편집인 경영지원팀 양승우 대리, 한수지 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1103

홈페이지 <http://www.motrex.co.kr/>

대표전화 070.4892.6008/6226

팩스 02.6280.1170

제보 ssaul@motrex.co.kr / soojihan@motrex.co.kr

C O N T E N T S

리더에세이

03 하나가 된다는 것_ 김기태 부사장

試와休

04 함께 가는 길_ 김준태

사진으로 보는 모트렉스

05 2018년도 시무식·비전선포식

모트렉스 소식

10 M.V.P 1월 연구소 선정자 인터뷰

12 천안시 복지재단 기부금 전달식

13 EAK 연구시설 구축

14 천안공장 비용절감상 수상 후 이야기

릴레이 직원투고

15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_ 영업2팀 임종하 사원

업무의 정석

16 2018년 인사제도 변경 내용
고정급 비중 확대 / 성과연봉제 도입 / 연구소 직급체계 개편 /
신규 포상 실시 / 채용 추천제 도입

生生 생활정보

17 2018년 정부제도 변경 내용
새로운 경제, 복지, 노동 관련 제도 /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 Top4

19 IT뉴스_ IT운영팀 감중원 대리
가상화폐 광풍, 비트코인은 무엇일까?

이달의 문화추천

20 도서 추천
파이프_ 스탠포드는 왜 그들에게 5년 후 미래를 그리게 했는가?

21 전시회 추천
돈 많은 백수가 되고싶다展

참여광장

22 지난 호 이벤트 결과 및 이번 호 이벤트



리더에세이_ 하나가 된다는 것

글_ 김기태 부사장

하나가 된다는 것

치열한 경쟁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힘듭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내 곁에 내 주위에 늘 존재하지만, 관심 없이 지나고 계시지는 않는지?

늘 내 곁에서 하루에 수십 번 부딪히는 존재들을 잊고 지낸다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없는 하나됨은 무의미 합니다.

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미래를 여는 변화와 도전은 자신을 알고, 내가 알고있는 나쁜 습관을 버릴 줄 알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시 한편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누군가의 새로운 목표를, 누군가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말들이 빈번하게 들려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웃음이 되어 행복이 번져가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호에 준비한 김준태 시인의 '함께 가는 길'이라는 시를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길_ 김준태

사람들은 저마다
멀리멀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더러는 짙레꽃이 흐드러진 길
더러는 바람꽃이 너울대는 길
더러는 죽고 싶도록 아름다운 길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울며 쓰러지며 그리워하며
멀리멀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여 우리 사람들이여
우리들은 혼자서 혼자서 간다지만
노래와 울음 소리 속으로 바라보면
결국 우리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보듬고 가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모트렉스 _ 2018년 시무식·비전선포식 편



1월 2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 컨벤션 홀에서 18년도 시무식과 비전선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본사, 판교, 천안공장 인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2020 Challenge One’의 목표를 다지고 우리 모트렉스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였던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이 날 행사는 2017년 10대 주요뉴스를 통해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사장님의 신년사, 시상식(비용절감상, 우수사원과 장기근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비전선포 기념영상과 대북 퍼포먼스가 이어졌고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더불어, 비전/가치 도출과정 공유, 각 실별 비전 실천계획 발표를 통해 비전에 대한 목표들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 새해 선포된 비전 'Beyond Driving, Beyond Imagination 자동차에 상상을 더하다'는 자동차에 새로운 IT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안전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Global Automotive IT Company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보다 먼저', '혼자보다 함께', '만족보다 도전'은 앞으로 모트렉스인이 지향할 핵심가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시무식과 비전선포식 행사는 SW2팀 윤경호 선임, 경영지원팀 강수아 사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외부 사회자보다 더 사회자 같았던 우리 모트렉스의 명MC 두 분의 완벽한 호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 수상자로는 17년도 장기근속상에 서비스부품운영팀 김혜진 차장, XAE 전대중 과장, 개발전략팀 김석호 책임, 통합물류팀 이정민 기사, 통합물류팀 정현웅 과장, 자금팀 한유리 과장, 통합물류팀 한상욱 대리, 영업관리팀 노이슬 대리, 품질관리팀 하득한 주임기사, 자금팀 김민아 과장, 영업1실 최달우 전무, 하이테크서비스팀 이태준 사원, 영업1팀 정복희 과장, PDI관리팀 김태영 기사, 경영지원팀 이현준 과장, PM2팀 강주형 선임, CS그룹 백일기 이사대우, 품질관리팀 문성희 기사, 경영지원팀 장혜림 과장, PDI관리팀 안두환 기사, PDI관리팀 서범석 차장, 경영지원팀 양승우 대리, 회계팀 김태욱 부장, PDI관리팀 강승상 기사, 개발품질팀 이성우 차장 총 25명이 수상하며 전 임직원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도를 빛낸 우리 모트렉스인에게 돌아가는 대표이사상과 실장상은 PDI관리팀 김태영 기사, 회계팀 정소담 대리, 경영지원팀 양승우 대리, 영업1팀 홍종민 대리, 영업2팀 두은민 대리, 전장영업팀 김선중 사원, 제조운영팀 신주용 사원, 하이테크서비스팀 김현우 대리, 개발품질팀 황은비 사원, SW1팀 이상훈 선임, SW2팀 임동욱 책임 총 11명이 수상하였고, 동료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형환 사장님께서 이번 신년사를 통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한편,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오늘의 안정과 동시에 내일의 성장을 위한 **혁신의 강도는 더욱 높여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값비싼 경험을 교훈 삼아 품질 개선에 완벽한 새신을 이루어 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전문성 강화, 그리고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건강한 조직체계 구축을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모아지는 우리 모트렉스인들의 단결된 힘만이 모트렉스를 더 한층 발전 시키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며 ‘하나되는 모트렉스’를 강조하셨습니다.

사장님 신년사 및 비전선포식 기념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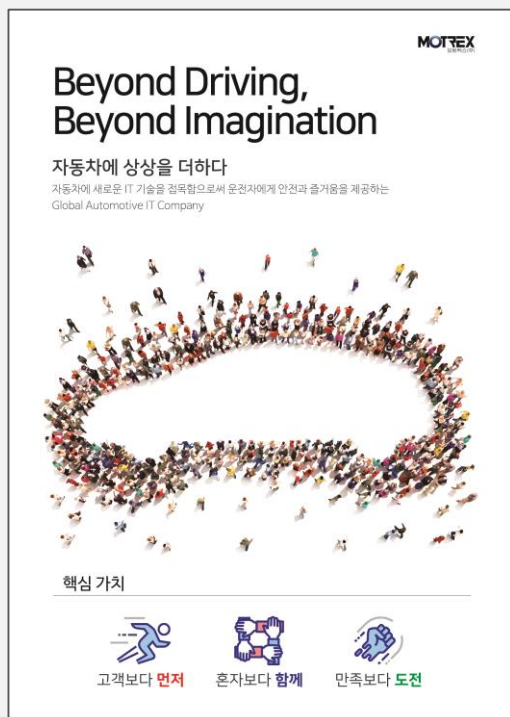
실별 비전 실천계획 발표





이번 시무식과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빛내 주신 전 임직원께 감사드리며, 계획하신 목표들 모두 달성하는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비전과 함께 더욱 힘차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트렉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 비전 포스터 / Business Goal 포스터





M.V.P 1월 연구소 선정자 인터뷰



격려하고 칭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신설된 M.V.P(Motrex Valuable Partner)의 1월 첫 수상자가 탄생하였는데요,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PM2팀 이영찬 선임연구원입니다. 약 10일간의 설문을 통해, ‘혼자보다 함께’를 가장 적극 실천한 임직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동료들에게 ‘YP PE RSE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감 있게 리딩하는 동료’, ‘PM팀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주도적인 협업을 실천하는 동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M.V.P인만큼, 이영찬 선임의 협업 비결과 수상소감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영찬 선임과의 웃음 가득했던 인터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1] 담당하고 계신 업무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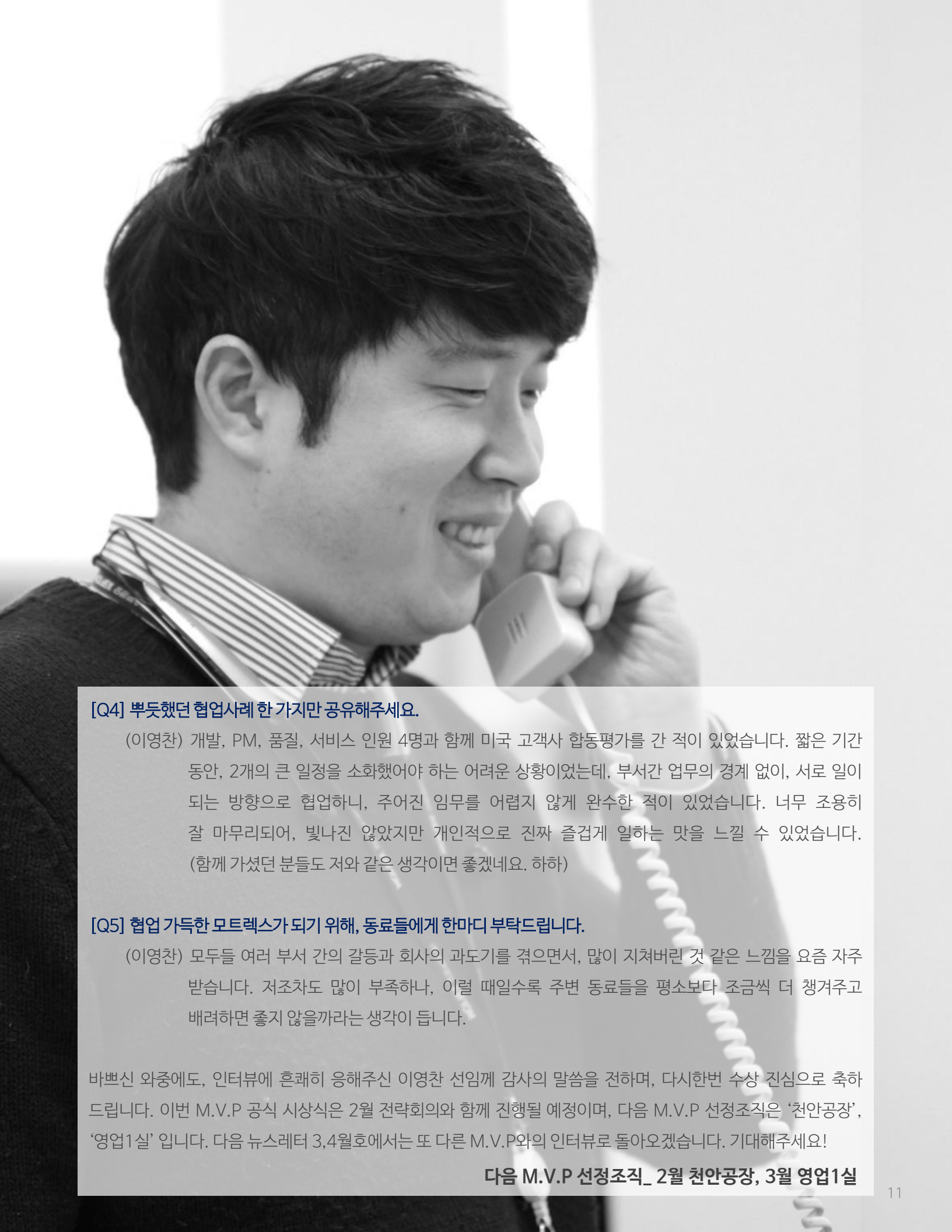
(이영찬) PM2팀 소속으로, 프로젝트개발(북미향 YP PE RSE) 관련 전체적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2] 새로 신설된 M.V.P. 포상제도 첫번째 수상자가 되셨는데, 본인의 수상 예상하셨나요?

(이영찬)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부서원들과 갈등을 많이 겪어와서 저와는 거리가 먼 상이라 생각해서 조금 머쓱하기도 합니다.

[Q3] 부서/구성원 간 협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영찬) 자기 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의 앞뒤 공정만 고려하고 배려하여 업무를 한다면, 갈등이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PM으로서 해야 할 업무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



[Q4] 뿌듯했던 협업사례 한 가지만 공유해주세요.

(이영찬) 개발, PM, 품질, 서비스 인원 4명과 함께 미국 고객사 합동평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2개의 큰 일정을 소화했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부서간 업무의 경계 없이, 서로 일이 되는 방향으로 협업하니, 주어진 임무를 어렵지 않게 완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히 잘 마무리되어, 빛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즐겁게 일하는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가셨던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면 좋겠네요. 하하)

[Q5] 협업 가득한 모트렉스가 되기 위해, 동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영찬) 모두들 여러 부서 간의 갈등과 회사의 과도기를 겪으면서, 많이 지쳐버린 것 같은 느낌을 요즘 자주 받습니다. 저조차도 많이 부족하나, 이럴 때일수록 주변 동료들을 평소보다 조금씩 더 챙겨주고 배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영찬 선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한번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M.V.P 공식 시상식은 2월 전략회의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M.V.P 선정조직은 ‘천안공장’, ‘영업1실’ 입니다. 다음 뉴스레터 3,4월호에서는 또 다른 M.V.P와의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M.V.P 선정조직_ 2월 천안공장, 3월 영업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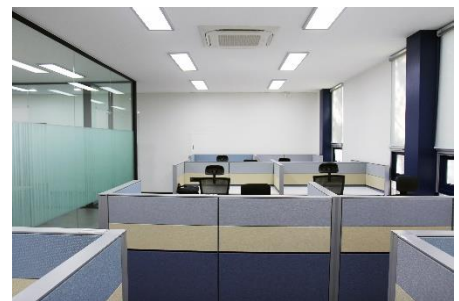
천안시 복지재단 기부금 전달식



천안시에 제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 모트렉스는 12월 14일 연말을 맞아 지역민들과의 나눔 문화에 보탬이 되고자 1천만원의 기부금을 천안시 복지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대표이사님께서서는 "지역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 주민과 이웃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고 말씀하셨고, 이에 오동균 복지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이 창출된 이익을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려는 모트렉스의 노력이 도미노처럼 전달돼 더 많은 기업이 나눔 문화에 동참하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우리 모트렉스는 2015년에도 장애인협회 안전경광등 마련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K(Emissions Analytics Korea) 연구시설 구축



지난 1월 25일 ‘모트레인’과 영국 배출가스 관련 조사 기관 ‘에미션스 애널리틱스’와의 JV(Joint Venture) 계약식 및 합작사 EAK(Emissions Analytics Korea) 연구시설 오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EAK 연구시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14평규모로 연구공간과 사무공간, 고객대기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AK는 앞으로 영국EA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배출가스의 측정 및 분석, 데이터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수립해 나갈 예정이며, 대기환경사업분야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 입니다.



천안공장 ‘비용절감상’ 수상 후 이야기



천안공장은 팀별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단위 절감액을 관리/보고하였던 지난 해의 노력을 통해 18년도 시무식에서 ‘비용절감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상 이후에는 공장 내 별도 포상수여식을 진행하고, 각종 기념품을 통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17년 수익성 개선 주요 실적자를 선정하여 상장과 포상금을 전달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타 직원에 동기부여를 제고하였습니다.

우수 실적자로 선정되신 정현택 부장, 이선웅 과장, 이영석 대리, 권석민 부장, 박철호 부장, 조상흠 차장, 이기선 과장, 한상욱 대리, 이상훈 사원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한번 천안공장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수상 후 이야기와 관련 자료를 전해주시는 구매기획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릴레이 직원투고_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글_ 영업2팀 임종하 사원

‘리더에세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 또는 지식으로 자유롭게 답하는 시간! 바로 ‘릴레이 직원투고’입니다.

※ 직원투고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2팀 임종하 사원입니다. 부사장님께서 ‘리더에세이’에 작성해주신 ‘하나가 된다는 것’에 답글을 투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사장님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귀뜸’이라는 책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좋은 시 한편이 있어 소개 드릴까 합니다.

곱게 보지 말고 곱게 보라...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세상을 곱게 보고, 사람을 곱게 보라...

곱게 보는 것이 고운 인생을 사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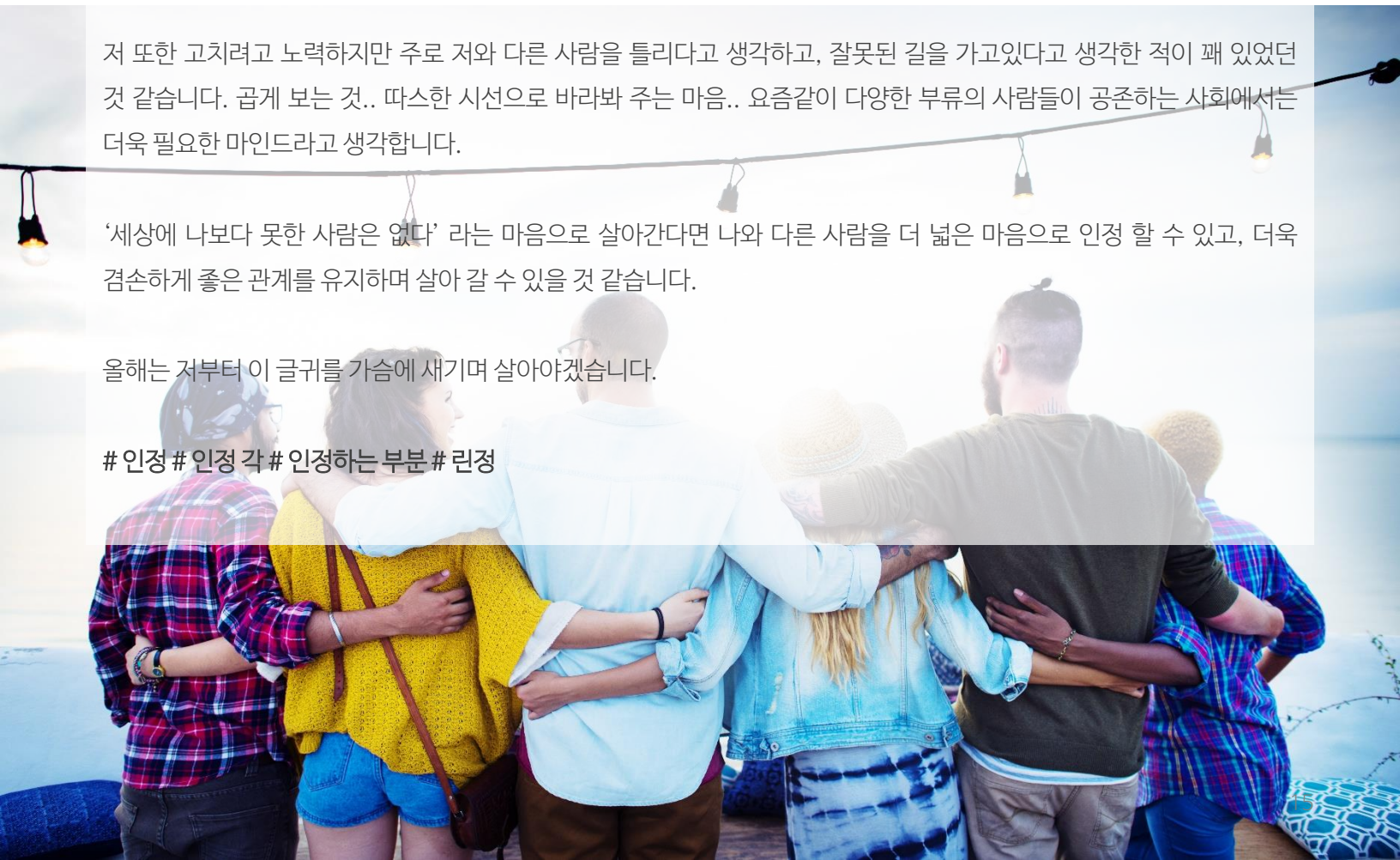
〈귀뜸〉中

저 또한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주로 저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있다고 생각한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곱게 보는 것..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마음.. 요즘같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더 넓은 마음으로 인정 할 수 있고, 더욱 겸손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부터 이 글귀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겠습니다.

#인정 #인정 각 #인정하는 부분 #런정





업무의 정석_변경된 인사제도 바로 알기!

자료_인사파트

모트렉스에 근무하면서 기본이 되는 경영지원실의 업무 제도와 시스템! 많기도 하고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맞는거야? 저게 맞는거야? 알쏭달쏭 헷갈리는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는 시간!

업무의 정석! 이번 호에서는 18년도 변경 및 추가된 경영지원팀의 **新**제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정급 비중 확대

‘18년도 1월부터는 B평가 기준으로, 개인성과연봉을 기본연봉에 산입합니다. 반기마다 개인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개인성과연봉을 기본연봉(고정급)과 통합하여 매월 분할 지급함으로써 월 고정급 상승, 연중 입사에 따른 불만 최소화, 그리고 대외 처우 경쟁력 강화를 기대합니다.

※ 조직성과연봉은 유지

2. 성과연봉제 도입

직급 및 연차에 따라 연봉이 자동 결정되는 ‘호봉제’에서, 전년도 업적평가 및 직급에 따라 차등 인상되는 ‘성과연봉제’로 보상 제도가 변경됨을 기억해 주세요!

3. 연구소 직급체계 개편

연구소 전 조직, 전장IT사업실 영상전자팀/전장신사업팀은 이제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직급을 사용합니다.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직급 단순화를 적용하였습니다.

4. 신규 포상 실시

MOTREX Valuable Partner의 약자 ‘M.V.P’라는 신규 포상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서/구성원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칭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정 조직을 매월 실 단위로 교대하며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 타 부서 성과창출에 기여한 동료를 추천해 주세요! M.V.P로 선발되면 호텔 식사권의 대박!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채용 추천제 도입

내부 임직원 추천을 통해 역량 및 Attitude가 검증된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 추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채용 진행 중인 전 부서 및 직급이 추천 대상에 해당되니,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추천은 ‘그룹웨어>인사관리>채용/승진>채용추천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새로운 경제, 복지, 노동 관련 제도 Top4**

1.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올해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 재해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에서 교통수단과 경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하네요!

2.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 가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언제나 발급 가능해 졌다~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했던 시스템 이용시간이 확대되면서 오는 1월 15일부터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운영인력 부족으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면, 새로 예산을 확보해 상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3.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훌쩍!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이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 2018년 1월 1일자로 시간당 6470원에서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 됩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 더 이상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은 없다!

지난해 5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후 9월 1일부터는 지하철 1-8호선 모든 역에서 휴지통이 사라졌습니다. 1월 1일부터는 9호선을 포함한 모든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NO! 보복운전도 NO!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 Top4

1. 음주운전 차량 견인

기존 음주 단속 경찰관은 단속 차량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고, 음주운전자를 집에 데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는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은 견인되고 견인비용은 적발된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단, 음주 채 측정 시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경찰이 견인비를 부담한다고 하네요~

2.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특별관리 - 교통법규 상습 위반 시, 유치장 간다?

올해부터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의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습 위반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3회 이상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7월부터는 모든 차로 확대 적용 될 예정입니다.

3. 보복운전 교정 프로그램 실시 - 보복운전자도 의무 교육 대상에 추가

이제부터 보복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치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교육은 피할 수 없으며 4월 25일부터 실시됩니다. 교육비도 1시간에 5천원이었으나, 1천원 인상된 6천원으로 변경 된다고 합니다.

4.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는 운전자, 과태로 200만원!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 출동의 골든타임은 단 5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도 꽤 많다고 하네요. 이에 지난 12월 26일부터 20만원이었던 과태료를 10배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방차의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과태로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소방차를 포함한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후방에서 접근할 경우, 운전자는 도로 좌, 우로 움직여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生生 생활정보_가상화폐 광풍, 비트코인은 무엇일까?

글 _ IT운영팀 감중원 대리



최근 1개월 비트코인 시세는 몇 백만원 단위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뉴스에서는 ‘비트코인의 광풍’, ‘투기’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정말 가상화폐가 맞는 것일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근래 가장 핫! 이슈인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트코인의 시초

2008년 비트코인의 동작방식을 구현하여 소개한 사람은 사카시 나카모토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른 채,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나카모토는 복잡한 암호를 풀면 비트코인을 얻는 암호 해독을 ‘채굴(Mining)’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장비일수록 암호 계산이 빨라 2017년 중반 이후 비트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를 채굴하기 위해 일부 PC 부품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폭등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는 무한대로 암호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없도록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수량을 제한하고, 백원, 천원, 만원과 같이 비트코인 단위를 실제 단위로 쪼개 분리하였습니다.

2. 비트코인의 활용과 불안요소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결론은 시장 흐름에 따라 다릅니다. 경제 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긍정적이라면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거래가 많지 않다면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였으나 불안요소 역시 존재합니다.

- 비트코인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발행주체가 없고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줄 장치가 없다.
-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 규제, 추적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 비트코인 외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익은 가상화폐를 만든 회사가 갖는다.
-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보안에 취약하다.

최근 비트코인의 모습은 가상화폐라는 인식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보통 한국돈과 미국돈을 바꾸면 ‘환전’이지만 비트코인은 ‘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검증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정책, 제도, 장치가 마련된 후 진짜 가상화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치열한 업무 환경 속에서 한 해, 두 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매일 매일을 같은 하루로 익숙함에 기대어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은 줄어들입니다. 하지만, 책 ‘파이브’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변화에 대한 고민만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며, 나 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함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진정한 목표와 자신을 찾아가는 모트렉스인,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모여 이루는 ‘하나되는 모트렉스’를 기대하며 이 달의 도서 ‘파이브’를 추천합니다!

책 소개

자신의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꿈은 더욱 가까워진다!

버지니아 공과대학 데이브 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삶의 목표를 써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9배나 더 많은 성취를 한다. 이에 이 책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행동하는 책’으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적인 꿈을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도록 만든다.

‘지금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을 시작으로 당신에게 있어 삶이란 무엇이며,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도록 여러가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자신의 모습과 미래를 보다 다각화하여 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장단점, 마음의 상태, 앞으로 삶의 비전과 가치들을 보다 명확하게 그려준다.



- 출판사 : 앵글북스
- 저자 : 댄 자드라
- 정가 : 13,000원

내용과 함께 도서를 추천해 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soojihan@motrex.co.kr 로 발송.

(메일제목 : 뉴스레터 도서추천)

이달의 전시 추천_ 돈 많은 백수가 되고싶다展



누구나 한번쯤 해보는 생각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우리들의 웃픈 이야기!

출근하면서 퇴근을 생각하고, 개강과 동시에 방학만 손꼽아 기다린다.

어제도 쉬고 싶었고, 오늘도 쉬고 싶고, 내일도 쉬고 싶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은 모두의 ‘웃픈’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하고자 한다.

무한 공감, 무한 감동할 준비 되셨나요?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많은 공감을 얻어 전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한 전시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보세요~!

- 전시기간: 2018년 02월 25일(일)까지_연장 전시
- 장소: 강남미술관(강남역 4번출구)
- 주최: 돈백전사무국
- 관람시간: 평일 11:00~20:30 / 주말 10:00~19:00
- 관람료: 성인 9,000원

★ 매주 월요일과 설날 당일은
휴관입니다!



참여광장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모트렉스! 이번 18년도에는 새로 신설된 '리더에세이'에 답글을 투고하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투고해주신 글은 다음 호 '릴레이 직원투고'에 담길 예정입니다. 모트렉스인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리더에세이' 답글 투고 이벤트!

이번 1,2월호 참여 이벤트는 다음 3,4월호 주제 '갈등은 먼저 제안하는 것으로 부터 해결된다'에 대한 본인의 생각, 시, 책, 노래 가사 혹은 사례 등을 자유롭게 투고하는 이벤트입니다. 투고해주신 분들 중, **두 분을 뽑아 속한 팀 전체에 맛있는 간식을 쏩니다!** 참여도 증진을 위해 개인 상품에서 팀 간식으로 변경하였으니, 더욱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① '갈등은 먼저 제안하는 것으로 부터 해결된다'에 관한 자유로운 글 작성(분량 A4 절반 이상)
- ② soojihan@motrex.co.kr로 해당 내용 첨부 후 이메일 전송
- ③ 인상적인 글 2명 추천

[응모기간]

2018년 2월 28일까지

[당첨상품]

팀 간식(선정 인원 팀 전원에게 쏩니다!)

[당첨자발표]

3,4월호 뉴스레터

